

□ 국문(비공식 번역본)

제16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23.12.3)

2023년 12월 3일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보건장관은 제16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

지리적 근접성, 공동의 문화, 공동의 비전 그리고 역내 및 국제사회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공동의 책임에 기반을 둔 3자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며;

APEC 보건실무회의 및 아세안 +3 보건장관회의 등의 역내 보건 기구뿐 아니라 3국 보건 협력 매커니즘을 통해 구축한 견고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내용을 논의하였다.

팬데믹 예방, 대비, 대응 (PPR)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중 보건을 지키며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뿐만 아니라 역내 및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3자 협력 매커니즘으로서 훌륭히 기능하는 한일중 보건장관회의(THMM)를 강화하면서, 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3자 공동행동계획(이하 공동행동계획)이 각 국 공중 보건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글로벌 공중 보건 안보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있어서의 큰 성과를 내며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에 만족스럽게(with satisfaction) 기억하며;

팬데믹 예방, 대비, 대응에 관한 UN 고위급회의를 환영하고, 국가 보건 비상사태 대비, 대응 및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팬데믹 예방, 대비, 대응에 관한 국제 조약(international instrument)을 위한 정부간 협상 기구(INB)와, 국제 보건 규칙(IHR) 개정에 관한 실무 그룹 업무의 진전을 주목하며;

WHO 서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의한 제3차 아시아 태평양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이라는 공통의 틀 아래 3국이 실시한 다양한 활동들을 사의로(with appreciation) 주목하며;

역내 보건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는 매커니즘에서 한일중 보건장관회의(THMM) 협력을 계속하고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다

음에 대해 동의한다:

1. 공동행동계획에 기반한 역학적, 임상 정보의 적시 정보 교류를 포함,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의 예방, 대비, 대응에 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2. 팬데믹을 예방, 대비 및 대응하는 강하고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숙련된 보건 인력을 개발, 훈련, 고용 및 유지하는 것과, 보건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조건 및 관리를 개선하는 것에 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3. 2023년 11월 28일 발족,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차 한일중 임상 전문가 공동 심포지엄뿐 아니라, 2023년 12월 4일과 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7차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 및 감염병 공동 심포지엄을 환영한다.
4. 기술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지속 및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 질병관리청, 중국 질병관리본부, 일본의 보건 안보 연구소 (2025년 이후 설립 예정, 가칭) 간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힘쓴다.

보편적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회복력 있는 사람 중심의 보건 시스템 구축

2023년 9월의 “보편적 의료보장: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포부를 확장”에 관한 보편적 의료보장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정치적 선언문을 환영하며, 보편적 의료 보장에 관한 2019년 UN 총회 고위급 회의 정치적 선언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는 건강이 지속 가능 발전의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에 대한 전제 조건이자 결과이며 지표인 것을 재확인한다;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있어서 일차의료의 핵심적 역할과, 사람 중심의 통합적 일차 보건의료로 사람들이 보건 시스템과 처음 접하게 된다는 점, 사회적 웰빙뿐 아니라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포용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 전문가-환자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임상 의사 결정에 환자 참여를 강화하고, 환자로 하여금 환자 자신의 전자 보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통해 환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공중 보건 정보 및 건강정보 문해력(헬스 리터러시)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의 디지털 헬스 도구의 역할을 인정하며;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향한 진전은 각 국가 안에서 그리고 각 국가간의 보

건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확대가 요구되는 점을 주목하며;

이에 다음에 대해 동의한다:

1. 정신 건강 지원뿐 아니라 필수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접근을 유지하면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혹은 혼란 뒤에 빠르게 복구시키고 공중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기 위해, 일차보건의료, 환자 전원 체계, 건강 증진, 질병의 예방, 조기 발견 및 통제 등의 필수 공중 보건 기능이 보건 비상사태 예방 및 대비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임을 보장함으로써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한다.
2. 취약 지역, 시골 및 벽지 혹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과, 디지털 헬스 기술 및 정보, 통신 기술의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사용 등을 포함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WHO 디지털 헬스에 대한 글로벌 전략 2020-2025를 고려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헬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증진시킨다.
3. 본 삼자 협력 매커니즘을 통해 모범 사례, 경험 및 교훈을 더욱 공유할 것을 장려한다.

건강한 노후 증진

건강한 노후에 대한 합의, 노력 그리고 성과와 이전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한 합의를 인정하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UN 건강한 노화의 10년(2021-2030) 및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한 노화에 대한 역내 행동 계획과 관련된 활기차고 건강한 노화를 포함한 건강한 노화에 대한 글로벌 및 역내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재확인 하며,

2023년 7월에 열린 제11차 인구 정책 포럼에서의 해당 분야에 대한 삼국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며,

한국·일본·중국은 각 국가의 문화 맞춤형 전략 이행과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구 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에 다음에 대해 동의한다:

1. 건강한 노후 관련 주제 협력 연구와 모범 사례 제공 등을 통해 다른 국가와

세계 다른 지역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여, 건강한 노후 증진에 관한 정책 대화와 각 국가의 경험 교류를 더욱 강화한다.

2. 보편적 의료보장을 모든 고령자에게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정신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뿐 아니라 증진, 예방, 급성, 재활 및 완화 치료를 포함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노화의 증가하는 수요, 특히 가족, 지역사회, 의료 기관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한 고령자를 위한 사람 중심 통합 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한다.

차기 한일중 보건장관회의는 2024년 일본에서 개최된다.